

서울 대학 회관  
6학년 7반 9명생태관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어제 비가 왔지만 땅이  
안乾고 햇빛이 쨍쨍

제목 : 오늘 하루 내 일상

아침 8:30에 일어났다.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주말에는 세에도 일어나는  
정말 신기 하다. 아침에 일어나서 좀 쉬었다가 일어나서 국어 2단원 시험 준비를 했다.

시험은 정말 싫다. 국어 공부 끝내고 친구들과 카카오톡 이라는 채팅 어플로

채팅을 오래 하다가 엄마한테 들켰다. 내 친구 현준이는 오늘이 생일 이어서

이 일기에 쓸 것이 없을 것 같다. 부럽다... 나는 쓸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...

일상 아카이브나 일기나 비슷한 것 같는데 이것을 기록에 넣을 것 이기 때문에

중요하다고 담임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. 이 일기를 쓰고 나서 영어숙제,

학교 숙제를 끝내면 자란다. 원래는 개그콘서트를 봐야 하지만 요즘 재미가 너무 없어서

보지 않는다. 비록 내가 일기에 쓸 것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내

평범한 일상이 언젠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.